

# “업·윤회사상 환경운동 모티브”

불교환경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안 해리스 교수(영국 성마틴대학 종교·사회윤리학)와 필 브라운(불교평화연맹 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논문(영국 불교환경운동의 잠정적 유형)과 <불교와 환경의 위기>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논문은 인터넷을 통해 '불교실천윤리'와 '보디넷'에 각각 발표했다.

## 해리스·브라운교수 인터넷에 논문 기고

해리스 교수는 <불교환경운동의 잠정적 유형>에서 불교의 정신·정의·전통을 통해 환경운동의 유형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주요 종교는 환경문제로 인해 자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원종교로서 위상이 급상승했다는 해리스 교수의 분석이다.

또한 그는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불

교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개혁운동'과 '농촌개발운동' 등의 예를 통해 동시대 불교의 경향이 '사회 참여적 불교'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교의 환경운동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해리스는 불교가 보다 적극

## ‘환경보호’ 인류 공동 관심사... 종교 연대 촉매제

적인 불교 환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로 이러한 세계적 불교의 유형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불교환경운동론'을 정립해 가야



○서구 물질문명의 극단적 병폐로 고통받는 환경문제의 치유책은 동인사상, 그것도 불교의 환경윤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범어사 인근 경동아파트 건립을 반대하여 가두시위하는 스님들 모습).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씨는 <불교와 환경의 위기>에서 불교가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환경문제는 에너지·부(富) 등을 지나치게 탐하는 현대문명의 이기적 속성이 기술 방종을 조장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과확론

명으로 생겨난 환경문제를 다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운동의 올바른 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에 따르면 불교가 바로 인류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인연·업·윤회·공덕 등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하는 마음의 병 '삼독'(三毒)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세기말에 이르러 지역과 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류가 직면하게 된 환경문제가 종교적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뒤로 '에코'(eco-)'란 접두어가 불교·기독교 등의 주요 종교의 머리 어휘로 쓰이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이다.

'에코'란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생태학, 즉 '에콜로지(ecology)'의 머리 어휘에서 가져온 것이다.

오종욱 기자

## “중간법계 도입·보살불교 강화”

정병조교수 '평신도 운동' 세미나서 제안

미래의 재가(在家) 불교운동은 참예한 사회적 문제에 불교적 방법의 대응이 전개될 것이며, 그 방법은 부처라는 이상향의 인격수련과 사회정의 실현의 '보살불교'이다.

정병조 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장)는 지난 5월30일 서울대에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현대한국불교의 평신도운동' 주제 세미나에서 불교계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재가불교운동의 개념을 불교윤리를 탐구하려는 태도와 그 원리를 다변화된 사회속에 전개할 수 있는 실천의지라고 규정하는 정교수는 1980년대 이후 태동하기 시작한 재가 불교운동이 80년대 들어 크게 신장됐으나 아직도 사회 봉사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람직한 재가 불교운동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독립재정 형태의 조직성 제고 △사원의 기능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향상 △불교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단의 행정적 지원 △교육위주를 탈피한 불교의 현실적응방법 등을 꼽은 정교수는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교수는 불교의 사상적 특성상 출가와 재가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이 둘 사이에 중간 법계를 제정, 이들 중간 법계자들에게 사찰경영, 사회봉사, 생활 불교 등의 현실적 임무를 맡기는 중간 법계제(法階制)를 제안했다.

한영우 기자

## “조선왕실·민중 명부신앙 선호”

김정희 '지장시왕도연구'서 밝혀 孝사상 내세구원 영향

절마다 있는 명부전(冥府殿)은 지옥을 연상시키는 갖가지 불화와 불상을 모셔 불자들에게 지옥을 실감케함으로써 생전에 자비를 베풀고 덕을 쌓아 극락정토에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미술사학자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학)는 최근 발간한 책자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에서 불교화 가운데 이런 지옥그림의 대표격인 지장보살도와 시왕도가 어떤 종교적 배경 아래 함께 조성·신앙되어 왔으며 어떤 형식과 양식을 이루면서 변천해 왔는가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명부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암흑세

계를 뜻한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하는 구세주이며, 시왕(十王)은 죄를 묻는 10명의 심판관으로 둘 다 명부의 주인들이다. 따라서 절마다 이 두 그림을 한쪽에 압축해 봉안했던 것이다.

김교수는 조선시대 승유역불 정책 아래서도 명부신앙은 유교의 孝사상과 맞아떨어지고 유교가 제시하지 못한 내세의 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왕실은 물론 여염집까지 불교를 신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시대의 명부전 불화는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불화의 귀족적이며 우아한 자태와 인물표현에서 벗어나 사



실적이며 민중적인 형상, 곡선보다는 직선을 선호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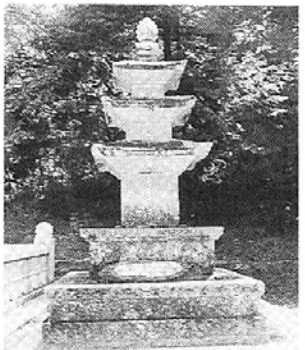
○일본 오소지(實性寺) 소장 조선전기 시왕도제4화(冥府殿) (우)

## 茶 최초 전래인 신라 '김대렴' 아닌 '대렴'

국내에 차를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은 김대렴이 아니라 대렴(大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희씨(서지화학자)는 최근 각종 사료를 통해 차를 중국에서 들여온 사람은 신라 흥덕왕(서기 9세기)때 당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며, 1940년 일본 총독부가 차씨개명을 공포한 직후 총독부 직원이 지은 '조선의 차와 禪'에 김대렴이라고 오기되면서 지금

까지 잘못 전해져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81년 국내에서 차를 처음 재배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삼계사에 세운 기념비에서 김대렴이라고 적혀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신증(新增)동국여지승람> 등에 모두 대렴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우)



○해인사 길상탑은 신라시대말의 대표적 소탑으로 불교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 해인사 길상탑 완주 송광사 대웅전·종루 보물지정

해인사 길상탑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종루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관리국은 5월31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 함안 해인사 길상탑을 보물 제1242호로 지정하고 전북 완주 송광사의 대웅전과 종루를 보물 제1243호, 제1244호로 각각 지정했다.

해인사 길상탑은 신라 진성여왕 9년(895년) 전라중 순교한 승병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3m 높이의 단아한 소탑으로 해인사 및 불교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왔다.

송광사 대웅전은 조선 광해군 14년(1622년)에 건립됐다가 인조 14년 개축에 이어 조선 철종 8년(1857년)에 재건된 목조 전각건물로 넓은 간격의 기둥사이로 휘어진 대들보를 엮고 있으며, 특히 천장 밑 모서리에 하늘을 나르는 선녀의 모습이 그려져 아름다운 천장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송광사 종루는 조선 세조 12년(1466년)에 창건, 임진왜란때 소실됐으나 철종 8년 대웅전과 함께 재건된 2층 공중누각으로 팔작지붕을 교차시켜 짜임새 2층짜리 목조 누각이다. 조선시대의 유일한 십자형 종루여서 보존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충주 미륵사지 석굴·석실 훼손

세계사 무분별 공사 탓

충주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삼도면 미륵사지 석굴(사적 317호)을 인근 世界寺가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륵사지인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사측은 시주함을 만든다며 석굴입상을 둘러싸고 있는 석굴의 벽과 바닥에 드릴로 24개의 구멍을 뚫고, 대형 시멘트틀을 사용하면서 석굴은 물론 석실 일부를 파손시켰다.

이반에 세계사가 훼손시킨 석실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주시가 없어진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미륵대원으로도 불리는 미륵사지는 현재 보물 제95호인 5층석탑과 96호인 석굴입상, 유형문화재 제19호인 8각석등 등이 있는 충주의 대표적 불교문화지다.

## 중앙박물관 임시휴관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부의 일제간체 청산작업에 따라 오는 7월 철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앙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간 임시 휴관한다.

박물관 전시유물은 현재 경복궁내 신축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이중 일부만이 전시된다.

# 책 의 화 해

## 왜! 서쪽에서 떠서 꼭! 동쪽으로 지나

출판사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

무심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9-8 임전각빌딩 3층 전화 : (02)416-2324 팩스 : (02)417-7781

# 삼화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안내

-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부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부 •통신부		
중 국 어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부		
신원방송과(불교포교과)	2년	•주간부 •통신부		
-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포교(신원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6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732-9904  
대전문경서적: 252-8558, 부산불교서적전시장: 632-7393,  
대구제일서적: 424-0801, 마산학문당: 46-2925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